

익산시, 광역전철망 추진 본격화

대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주도 전북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의 길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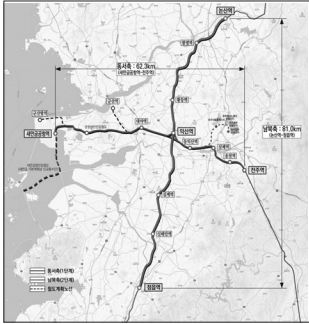
철도도시 익산시가 아침 차게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며 추진 궤도에 올랐다.

익산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주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전북도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그동안 대공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북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도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도시처럼 국가 주도의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익산시는 전북의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전주, 군산, 완주, 새만금 등



철도도시 익산시가 아침 차게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사업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며 추진 궤도에 올랐다.

도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을 전라적으로 구상해왔다.

향후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는 물론, 향후 국가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 대공법 시행에 앞서 전북 특별자치도는 광역전철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연계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목표로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공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높아진다.

시는 이를 통해 도내 도시 간 접근성 향상,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연계 강화, 철도 중심 대중교통 활성화, 인구 유입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공법 국무회의 통과는 익산과 전북 전체 교통체계 개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와 정치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어린이들 '푸른 익산 함께 만들어요'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 진행

지구 사랑 알리기 거리 행진·씨드밤 만들기·SNS 홍보

익산시 어린이들이 작은 손으로 푸른 익산을 가꾸는 의미 있는 활동에 나섰다. 시는 식목일을 기념해 15일 익산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연 굿키즈어린이집 원장)와 중앙체육공원에서 지구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35개소 영유아를 포함해 학부모, 교직원까지 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영유아들이 일상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구 사랑 메시지를 전하고, 가정에서 준비한 커피 찌꺼기와 씨앗으로 '씨드밤(seed bomb)'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씨드밤은 각 어

린이집 주변과 가정 근처에 심어져 앞으로 지역 곳곳을 푸르게 가꿀 예정이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캠페인 활동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지구 생태계와 환경 지키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지연 회장은 "영유아 시기부터 내가 사는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영유아들이 스스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녕!! #익산 챌린지'를 추진해 친환경 교육과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1:1 맞춤형 현장면접·기업 안내·선호조 조사 등 진행… 청년에 실질적 일자리 채용 기회 제공

익산시가 청년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익산시는 15일 청년과 기업 모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익산 청년시장에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봄을 잡(JOB)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참여형 구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목을 받았다.

설명회에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선도기업, 인턴 지원사업, 청년정책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11개 기업이 참여해 사전 및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기업정보 현황판과 청년 선호도 조사 공간이 마련돼,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익산시는 올해 짝수 달마다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단순히 부스만 둘러보는 박람회와 달리 설명회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익산에 있는 좋은 기업을 알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일자리 플랫폼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K-관광섬 4월 신춘문에 온라인(SNS) 이벤트 개최

군산시가 전국의 '드립력 민첩 교수'들을 모집한다.

시는 25일까지 군산 K-관광섬 공식 인스타그램(gunsan_k_island/군산 K-관광섬) 계정에서 신춘문에 온라인(SNS)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군산 K-관광섬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K-관광섬 다

달이 이벤트' 중 두 번째로, 3월에 진행한 '이 섬 알고 있섬?' 초성 맞추기 행사에는 총 3,527명이 참여하며 인기를 얻었다.

4월 기획 행사는 말도, 명도, 방축도 3개의 섬을 주제로 신춘문을 진행한다. 신춘문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초단편 시 공모전으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30자(띄어쓰기 포함)

이내의 짧은 시를 말한다.

군산 K-관광섬 인스타그램(gunsan_k_island/군산 K-관광섬)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시는 응모자의 참신함과 '좋아요' 수 등을 기준으로 4월 중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 몽골에

새만금 한글학당 개소

국립군산대학교가 15일 몽골(울란바토르)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2025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국립군산대는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설초중고등학교(울란바토르 소재)에 새만금 한글학당을 열었다.

현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설초중고등학교생 40여 명이 올해 12월까지 주 3회 총 450시간의 초·중급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높은 한국어 교육열에 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SGI서울보증, 군산시에

1000만원 성금 전달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본부장 조지영)가 15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하나로 군산시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운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00만 원씩 전달되며, 시설별 실정에 맞게 무료급식소 운영비, 시설기능보강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앞서 SGI서울보증보험 임원진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기탁식에 참석한 조지영 광주호남본부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큰 보람을 느껴왔다. 이번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